

한국전통사상의 디자인 적용에 대한 고찰

A Study About Design Adoption of Korean Traditional Thoughts

박영목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Park, Yeong-Mog

Kooimin Univ.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 Key words: Traditional Thoughts, Native Design, Book of Changes

1. 서론

한국전통을 디자인에 접목하려는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과 관점으로 시도되어 왔다. 전통적 시각요소를 응용하는 방향, 현재 생산되고 있는 디자인이 한국적 디자인이라는 관점, 한국 전통 사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찾아 응용하려는 방향 등 다양한 관점과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관점이 보다 한국적인 디자인을 모색하는 올바른 방법인가를 고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통 사상을 디자인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 어떠한 체계로서 접근할 수 있고, 어떠한 점들을 유념하여야 하는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한국전통사상의 의미

우선 한국전통사상이라 함은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한민족 역사의 시작을 일반적으로 단군신화(BC2333)¹⁾로부터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약 5,000년의 역사를 통 털어 일관된 사상이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되며, 만일 어느 특정 시대만의 사상을 강조하면 그 사상이 5,000년 역사에 일관된 사상이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²⁾ 이러한 연유에서 단군신화³⁾ 이후로의 사상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여 통시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록문자의 미완성⁴⁾, 문헌의 부재⁵⁾, 전래의 단절 등의 이유로 전통사상의 면모를 살피는 본격적인 시작을 삼국시대에 불교, 유교, 도교가 도입되면서부터 볼 수 있다.⁶⁾

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하여 국가의 통치이념이나 사회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조선시대에는 고려 말 위정세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 및 정부재정의 부실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기친 불교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써 유학자들이 불교를 강력하게 탄압하고 유학의 사상에 근거하여 국가의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그 이후 500년간 조선시대의 중요한 사상, 정치, 문화 등에 폭넓고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 등이 기존 유교의 관념 중시적 가치에 대한 보완 및 비판으로 시도되었으나,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실효를 거두기도 이전에 한국의 전통사상의 흐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전통사상의 디자인 응용

한국전통사상의 디자인에 응용의 방법으로는 우선 사물, 유물 등을 탐구하느냐 사상 자체를 연구의 시작으로 하느냐 2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각 접근 방법에 따라 다시 형식의 응용과 내용(의미)의 응용으로 나누어 총 4가지 접근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각 접근 방법의 특징과 유의할 점,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사물관찰과 형식의 응용 : 이 방법으로는 우리 선조들이 제작, 사용하던 사물들을 관찰하고 나타난 양식과 형태, 재료 등을 지금의 디자인에 적용하여 보는 것이며, 가장 활발히 응용되는 영역은 토산품의 개발, 전통양식을 이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 전통공예 기법으로 제작하는 일상용품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은 현대의 산업생산물의 현대에 맞는 이상적인 디자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복고적, 고(古)품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의 디자인에 어울리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2) 사물관찰과 내용의 응용 : 사물을 관찰하고 관찰된 형태, 재료, 예측되는 가공방법 등으로부터 선조들의 도구관, 사물관을 예측하여 그 도구관이나 사물관으로써 현대의 디자인 방법을 접합하는 체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의 예는 석굴암의 불상이나 근고대의 건축물을 측정하여 분석하여 황금비의 분할을 찾아 낸다거나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관찰대상은 선조들의 것이나 분석방법이나 관점은 현대의 것을 쓰고 있어 선조들의 도구관을 명확히 밝혀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과거의 선조들이 황금비를 고려하여 집을 지었을 수도 있지만, 남향(火)으로 향하게 하여 화의 기운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하

1) 김덕진, 연표로 보는 한국역사, 선인, 2002, p10

2)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심산, 2003, p25.

“현재적으로 의미화된 과거”만이 오늘날의 전통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여 한반도에는 BC50~10만년전부터 인류가 살고 있었으나 단군신화로부터 사상연구의 시작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3) “그러나 신화의 경우에는 해석에서 잠재된 사상이 밝혀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나 “단군신화는 비록 신(神)에 관한 이야기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것에 담겨있는 내용은 실제로는 인간의 이야기이다”라고 하여 단군신화가 우리민족전통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4) 심규호,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일빛, 2002, p28. BC 1066년 “갑골문은 한자의 원형으로..”라고 기술하여 그 이전에는 한자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단군신화 및 박혁거세에 관련된 신화는 [삼국유사]에, 고주몽신화는 고구려 시대의 [기이(紀異)]에 기록되어 있어 2,000년 이상 구전되거나 고대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 고조선의 기록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기록이 없다.

6)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심산, 2003, p18.

“한국철학사상사는 한국을 주체로 할 때 가능한 것이지만, 여기서 고유성과 외래성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한국 전통사상의 주류를 이루어 온 유교와 불교가 외래사상이라고 하는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과연 ‘한국적인 철학사상’이 존재하느냐고 한다면, 이는 지극히 편협한 견해요 지나친 자기비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대한 사상이나 철학은 국가와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 인류 전체에 귀중한 자산이다. 누가 만들어 냈느냐보다도 한 민족의 의식세계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기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여 남면하는 면을 음수(陰數· 짝수)로 설계하였을 수 있으며, 집의 길이는 양의 수를 이용하였을 수도 있다. 이렇듯 그 당시 선조들이 어떠한 사고와 방법으로 설계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내고 다시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의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본의를 해석 하고자하는 경우 그 시대의 사상 및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힘든 일이다.

3) 전통사상연구와 형식의 응용 : 상수학(象數學)적 접근
 상수학적 접근의 예로써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론의 응용, 주역의 수상학적 논리체계의 응용이며, 그 외에도 사주명리학, 풍수지리학 등의 논리체계의 응용을 들 수 있다.

이 방향은 최근 발표된 논문들에서 보여지는 접근 방법으로써, 일견 접근하기 용이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조심하여야 할 것은 의미의 해석이다. 즉 오행의 속성을 상생상극(相生相剋)의 관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현대의 디자인 엘리먼트인 색상, 형상 등에 그대로 대입하여 응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토(土)가 황색으로 표기되어있으나 이것이 진짜로 황색을 의미하는 것인지, 토의 속성인 모든 색의 중간으로 해석하여 무채색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 수상학적 접근은 음양오행의 경우, 관계의 경우가 극히 제한되어있는 대신에 (생과 극의 2가지 경우) 객체의 가지 수가 5개(목, 화, 토, 금, 수) 밖에 없어 모든 사물을 이 5가지의 속성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하나의 개체(예를 들어 木)이 의미하는 뜻이 매우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목이 나무, 파랑, 동(東), 궁(전통음계의 궁, 상각, 치, 우 중 궁), 어린아이 등이다 라는 뜻을 나무와 파랑과 동과 궁은 같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이다. 이것은 색상의 경우 파랑색은 다른 색에 비하여 역동적이다. 어린아이는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하여 성장하며 활동적이다. 궁은 다른 음에 비하여 활발하다 등과 같이 해석하여야지, 궁과 목은 같다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파란색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활발하고 역동적인 색이었다면 현대인이 생각하는 역동적이고 활발한 색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방향의 연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음양오행, 주역, 동양의 수리, 천간지지, 사주명리, 풍수 등 수상학을 응용한 체계로부터 탐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응용 체계가 현대 디자인의 문제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오행이나 주역의 과상의 속성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과거의 사물에 대한 해석이나 극히 제한적이어서 현대 디자인에 사용되는 각종 엘리먼트들에 대한 해석이 내려지고 있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즉, 프린터는 오행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는 어떤 행에 속하는지 등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로직 및 개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개체의 현대적 의미로서의 재해석, 응용로직의 현대디자인에의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전통사상연구와 내용의 응용 : 의리학(意理學)적 접근

마지막 방법으로 선조들의 철학적사유의 근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현대디자인에 대한 철학적 재해석을 시작으로 이를 기반으로 실행체계의 개발이라는 방향이 있다. 방법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며 정통적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중심을 가는 길 중 그 어떤 길도 같은 길은 있을 수 없다 무한대의 점의 위치가 저마다 다르다..... 따라서 중심을 향한 길도 무한대일 수밖에 없다."⁸⁾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논어에서 공자와 제자(子路)와 대화에 제자들의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답이 달라지는 것을 들은 제자가 어찌 답이 다르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구(求)는 물러나므로 나아가게 한 것이고, 유(由)는 남보다 배는 앞서 가므로 물러가게 한 것이다.⁹⁾라고 답하여 피교육자의 상황에 맞추어 개발시키는 방법을 택한다⁹⁾라고 했듯이 5,000년 역사의 선조들의 사상에 대한 이해, 유물론의 이해, 그리고 총체적 시간과 다양한 해석의 종합적 해석에 의한 한국사상의 통합적 이해는 한 인간이 평생을 걸려도 이루지 못 할 지식과 깨달음의 덩어리 일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였다는 착각을 하기 쉬우며 전통사상의 근본이 수신(修身)을 위한 내용이 많아 사물을 만들어야 하는 디자이너들에게는 수양론(修養論) 쪽으로 기울어 실제로 사물을 만들어 내는 체계에의 응용이 힘들다는 어려움도 있다.

4. 결론

위의 4가지 접근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알 수가 없고, 4가지 방법의 유효 적절한 응용과 융합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전통사상을 현대의 디자인에 적용시켜보고자 하는 시도에는 신중함을 요구하며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대디자인의 통시적 통합적 이해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한국전통사상의 현대디자인 응용 혹은 계승 역시 각 연구자의 성향, 관점에 따라 진행하고 그 결과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전체적으로 완성되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심산, 2003.8
- 박문영 · 김경찬, 한국사이하기, 동해출판, 1998.12
- 지두환, 한국사상사, 역사문화, 1999.9
- 전상운, 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 법륜, 반야심경이야기, 정토출판, 1991.8
- 김덕진, 한국역사, 선인, 2002.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 사상, 2001.12
- 낭월 · 박주현, 음양오행, 동학사, 1997.
- 대산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한길사,
- 이기동, 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2.3
- 이기동, 맹자강설, 1992.3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2.3

7) 송은화 · 최유미, 동양관상을 이용한 성격에 따른 한국인 여성 캐릭터의 얼굴 모델 연구, 불학술대회논문집2003, 2003
 박영록, 동양의 수의 개념으로 본 디자인, 불학술대회논문집2003, 2003 등

8) 법륜, 반야심경이야기, 정토출판, 1991.8, p41에서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교화방법인 방편반야에 대한 설명 중에서
 9) 이기동, 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2.3, p332